

Next Energy

전기본 시사점, 이제는 발전보다 계통



주간 주요 기업 주가 변동

- **배터리:** 포스코퓨처엠(+20.3%), 삼성 SDI(+19.5%), LG화학(+9.7%), LG에너지솔루션(+7.7%)
- **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20.3%), Centrus(-5.6%), Cameco(-2.4%), Nuscale(-1.2%)

전력 수요 급증이 불러올 전력시장 구조 개편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AI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상향됐다는 점이다. 3 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 년 목표 최대전력은 158.4GW 로 제시됐으며, 반도체 +20.6GW, AI 데이터센터 +7.9GW(입지 확정된 1 단계만 우선 반영)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 반면 수요관리 효과는 -20.8GW를 가정하고 있어 효율 개선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필요한 발전·계통설비는 현재 전망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만큼 전력망의 투자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부채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한전의 재무구조만으로는 AI반도체 시대에 필요한 송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송전망 사업을 별도화하거나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이는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향후 계통투자의 재원조달 방식과 한전의 사업구조가 전기본의 중요한 후속 논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있었다. GPU 교체주기가 3~5 년으로 짧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장기 수요를 전제로 송·변전망을 과잉 구축할 경우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장기 가동 확약, 계통연계 비용 부담, ESS 및 청정에너지 조달 책임 등을 부과해 수요자에게도 전력인프라 투자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참고했을 때 향후 전력 시장의 핵심은 발전소 건설보다 신규 수요 배치, 계통 투자비 부담 및 가격체계 조정에 달려 있다.

최근 논의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같은 방향이다. 전력이 남는 지역에는 수요를 유도하고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비용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송전·소비의 입지를 동시에 조정하려는 시도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역시 발전설비 부족보다 송전망 병목 문제에 가깝다. 12 차 전기본을 시작으로 발전원 확대를 넘어 전력망 투자, 수요자 비용부담, 지역가격제, 시장감독체계까지 함께 개편되는 전력시장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주간 주요 뉴스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

양사 합병비율은 1:0.1174540 이며, 내년 1 월 합병 예정. SKIET 의 재무안정성 확보 및 재무리스크 완화 목적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韓에 제한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방안을 전달받아 투자 구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 중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비수도권 산업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 연내 시행 계획

정부,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신규 출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 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확보 목적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 조원, 십억달러)	RECENT	증감(%)
KOSPI	6,789	▼1.8
KRX 2 차전지	3,747	▲12.1
KRX 유틸리티	955	▲5.4
LG 에너지솔루션	87	▲7.7
삼성 SDI	46	▲19.5
SK 이노베이션	20	▼6.3
LG 화학	20	▲9.7
포스코퓨처엠	17	▲20.3
두산에너지빌리티	56	▲20.3
Tesla	1,377	▼3.9
CATL	259	▼5.9
BYD	118	▲0.7
Fluence	2	▼4.0
Nuscale	4	▼1.2
Centrus	4	▼5.6
Cameco	44	▼2.4

에너지/인프라/배터리 황성현, Ph.D
02)368-6878_tjdus2009@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6	26.05	25.06	MoM(%)	YoY(%)	1Q26	2Q26	QoQ(%)
글로벌		1,702	1,481	1,258	14.9	35.4	3,182	4,525	42.2
지역별	중국	1,025	919	785	11.5	30.4	1,722	2,749	59.6
	아시아	150	132	80	13.3	88.2	360	415	15.2
	서유럽	240	171	149	40.7	61.2	487	578	18.6
	북미	92	101	109	(8.6)	(15.1)	253	286	13.1
브랜드별	폭스바겐	78	70	79	11.7	(1.0)	191	221	16.1
	GM	13	15	18	(15.5)	(28.8)	33	43	31.6
	테슬라	218	184	180	18.9	21.3	461	553	20.0
	BMW	45	34	36	29.9	23.7	93	115	23.4
	현대기아	62	60	41	2.6	50.1	143	179	25.5
	BYD	258	242	242	6.5	6.9	429	702	63.7
서유럽	폭스바겐	47	38	37	22.3	26.6	118	126	7.4
	GM	0	0	0	300.0	(33.3)	0	0	(60.0)
	테슬라	33	16	18	106.0	85.8	47	55	15.9
	BMW	22	15	15	47.1	46.4	39	52	34.4
	현대기아	17	14	11	23.6	56.0	36	45	25.3
	BYD	10	8	7	19.8	36.6	23	26	11.0
북미	폭스바겐	2	2	3	(5.3)	(46.6)	4	6	32.7
	GM	9	11	15	(17.1)	(37.9)	26	31	19.3
	테슬라	45	42	48	6.4	(7.5)	117	125	6.4
	BMW	2	2	4	(11.6)	(42.1)	5	7	30.6
	현대기아	6	9	7	(39.6)	(21.8)	18	22	22.3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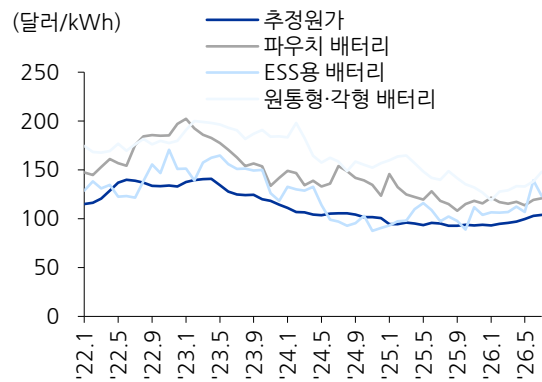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6			26.05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3,269	7,580	175	40,931	6,495	159	5.7	16.7	10.4
주택용	6,617	1,031	156	6,061	914	151	9.2	12.8	3.3
일반용	11,130	1,944	175	9,801	1,578	161	13.6	23.2	8.5
교육용	729	111	152	601	80	134	21.4	37.8	13.5
산업용	22,675	4,279	189	22,387	3,710	166	1.3	15.3	13.9
농사용	1,551	139	89	1,399	128	91	10.9	8.6	(2.1)
가로등	255	44	172	275	44	161	(7.5)	(0.7)	7.4
심야전력	311	33	105	407	40	99	(23.6)	(19.4)	5.5
	26.06			26.05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합계	159,413	47,829	41.7	159,095	45,546	38.5	0.2	5.0	3.2
Nuclear	26,050	14,264	76.1	26,050	14,236	73.5	-	0.2	2.6
Coal	40,767	15,511	52.8	40,767	12,079	39.8	-	28.4	13.0
LNG	46,276	11,025	33.1	46,276	11,661	33.9	-	(5.5)	(0.8)
Oil	162	3	2.6	162	3	2.5	-	-	0.1
Water	6,516	605	12.9	6,516	644	13.3	-	(6.1)	(0.4)
Renewable	39,112	6,267	22.3	38,793	6,761	23.4	0.8	(7.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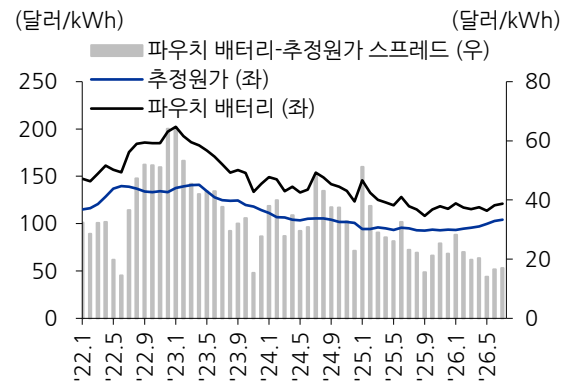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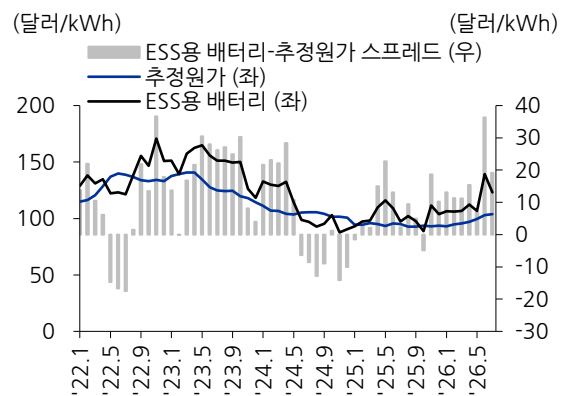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우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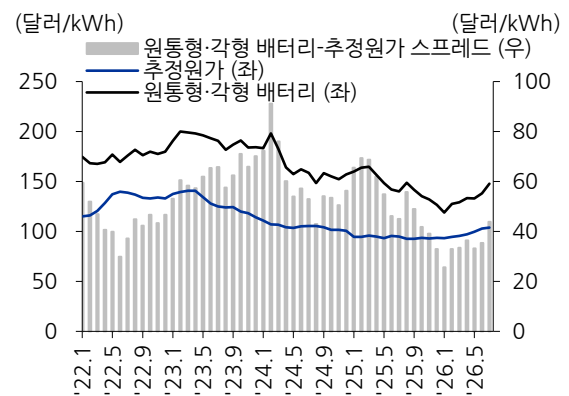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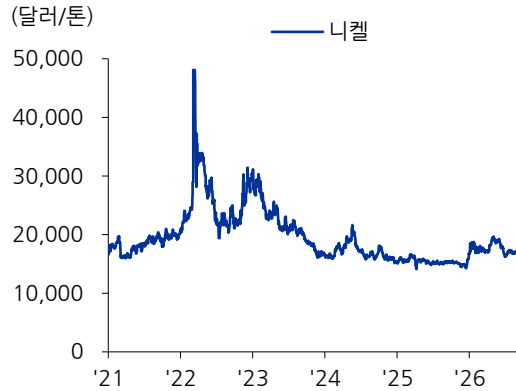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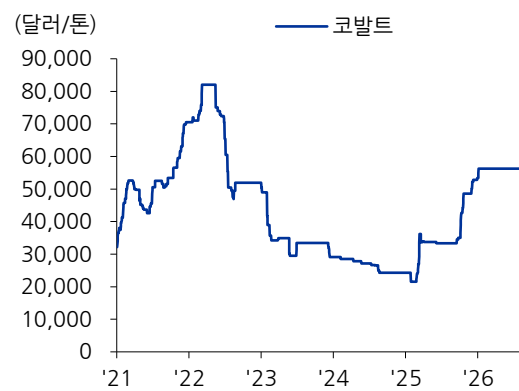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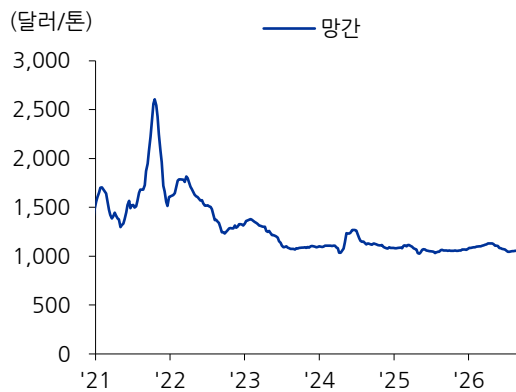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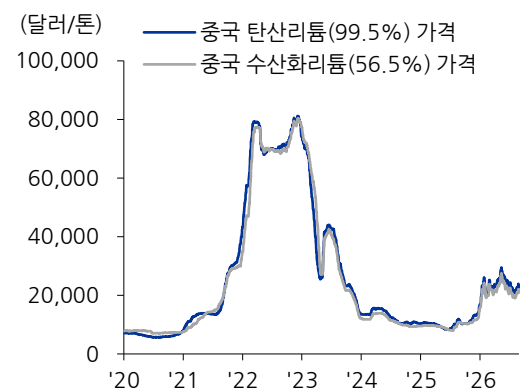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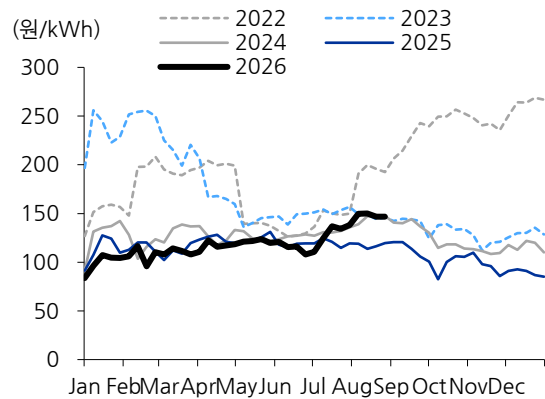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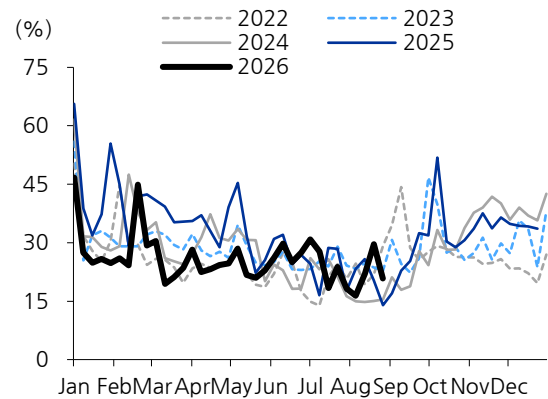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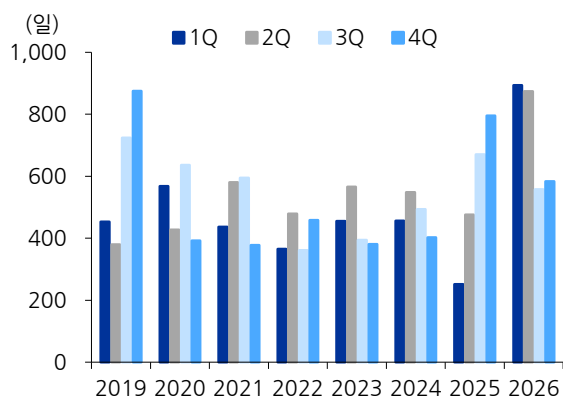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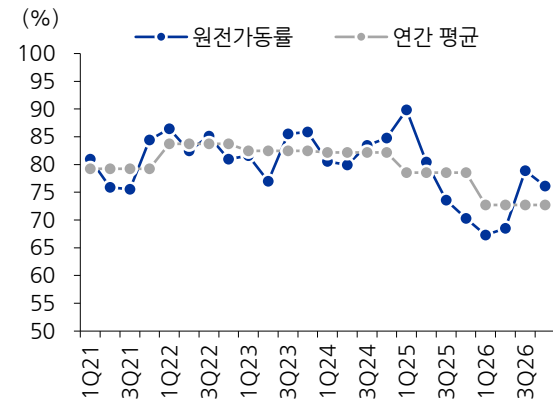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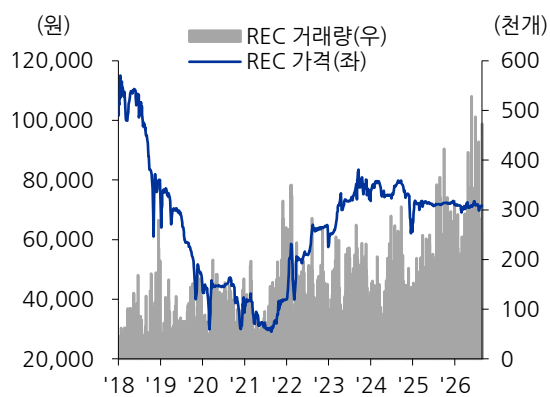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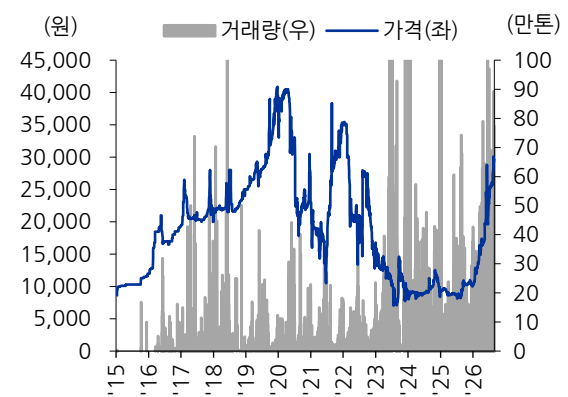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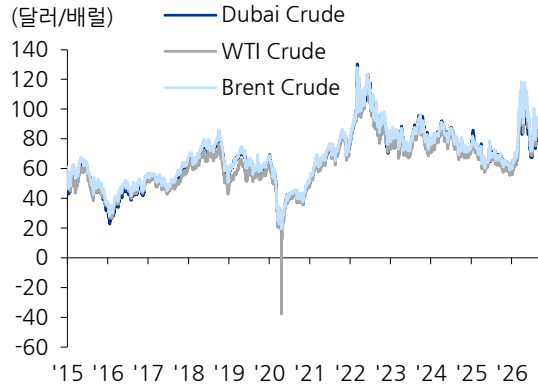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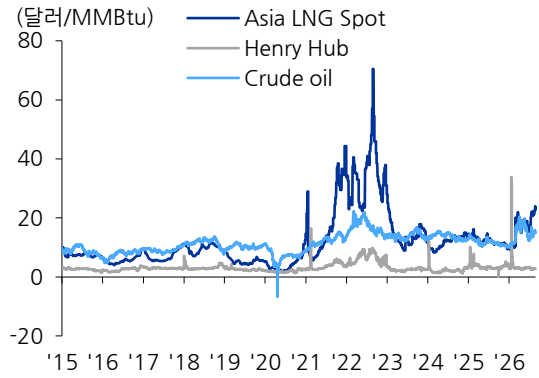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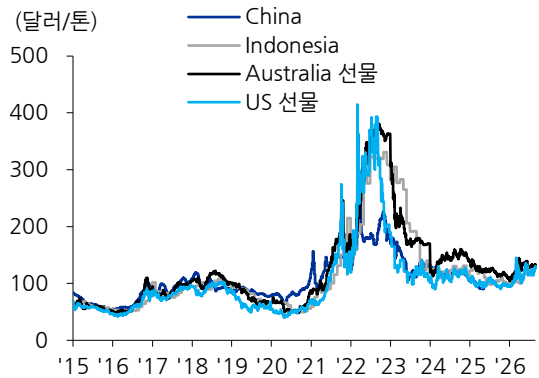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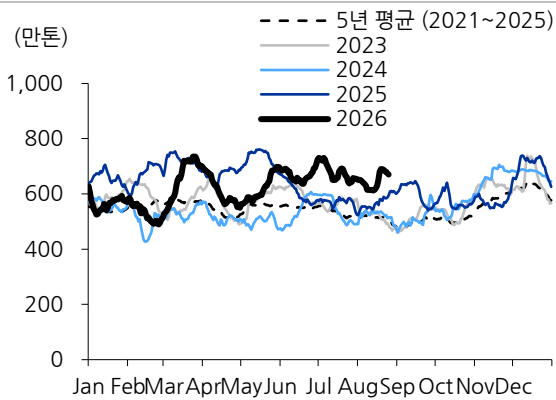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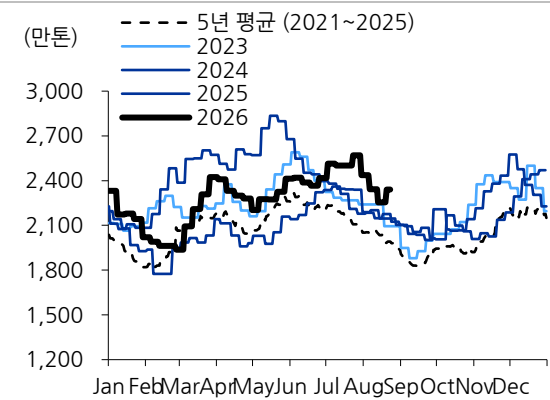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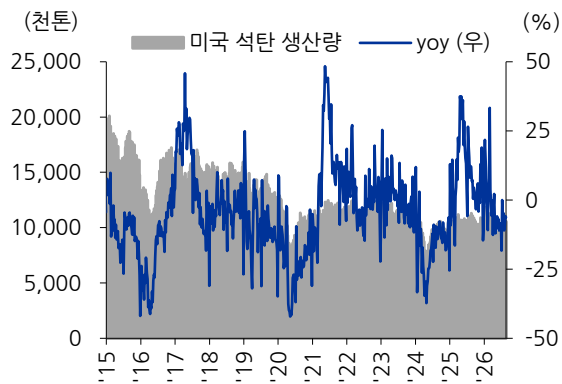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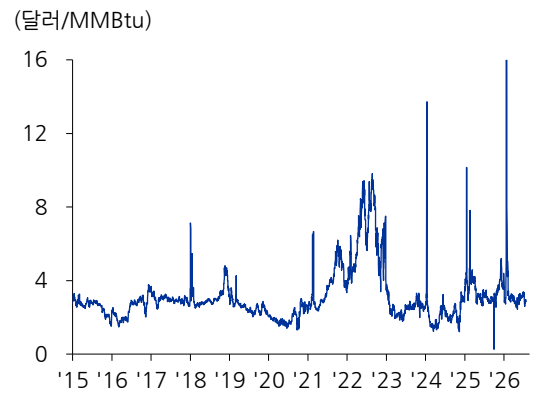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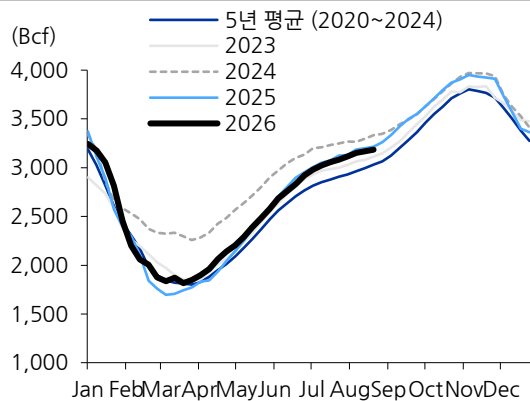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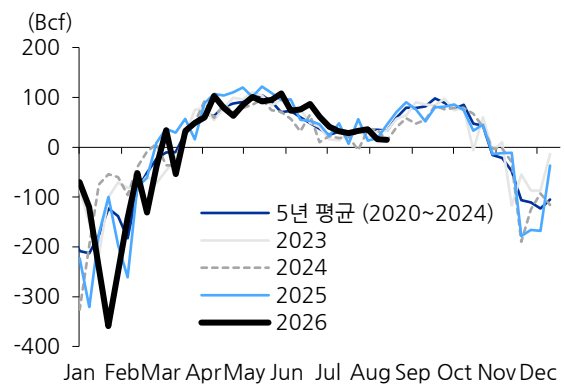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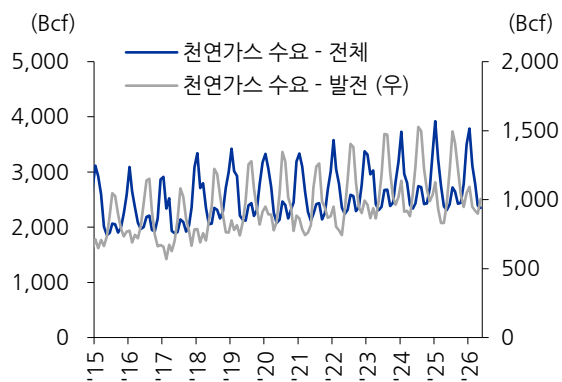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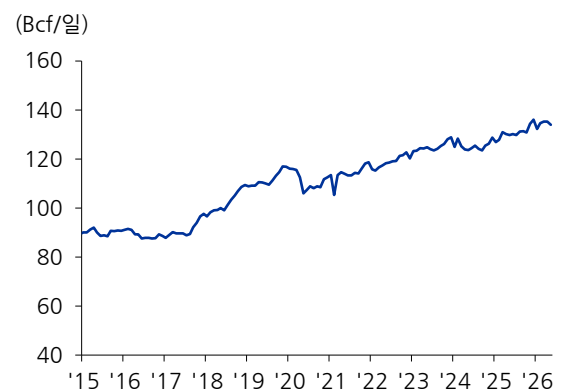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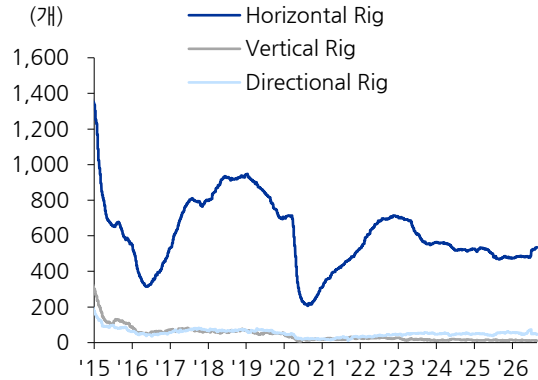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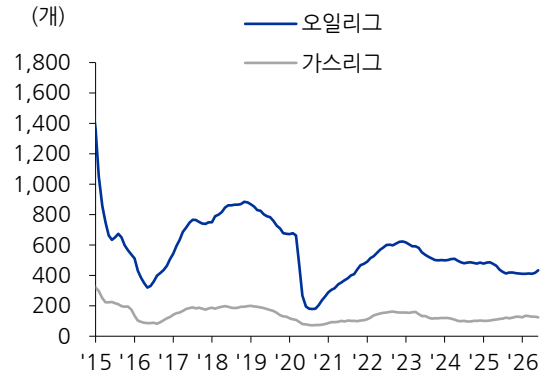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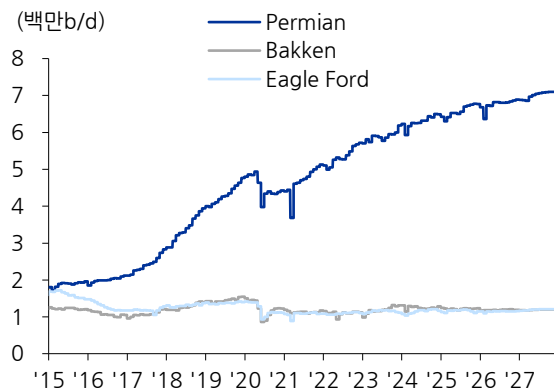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용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